

# 어린이 심장병 이야기

(제 4 회)

어린이 심장병 집단검사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합시다.

## 4. 심근질환(心筋疾患)

심장의 근육이 침범당하는 병으로 그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어린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 5. 기 타

근래 우리나라에도 가와자끼병(川崎病)이 어린 영유아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때 심장관상동맥이 침범을 받아 사망하는 수가 있으므로 가와자끼병에 걸린 어린이는 심장에 대해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심장병의 진단법

의사의 진찰, 방사선검사, 심전도, 초음파검사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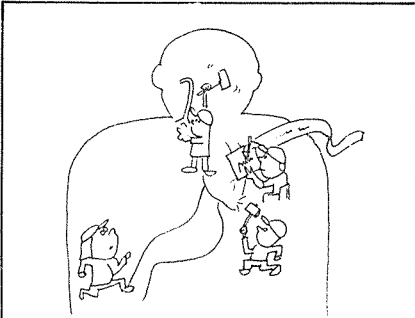
1. 의사의 진찰 : 의사가 심장을 청진함으로써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진단은 심장전문의의 진찰을 필요로 합니다.

2. 방사선검사 : X 선을 찍음으로써 심장의 크기, 모양을 더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3. 심전도 : 소아과 영역에 있어서 심전도 검사는 선천성 심장병과 류마티스성 심장병뿐만 아니라 부정맥, 전해질의 이상, 내분비성 및 대사성질환, 그리고 급성감염성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초음파검사 : 요즈음은 초음파검사를 하므로서 대부분의 심장병을 대략 진단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고통이나 방사선을 쬐이지 않고 진단할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각종 심장병외에 내분비성 대사성 질환, 급성감염성 질환을 진단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 심장병 검사의 필요성과 단점

- 어린이 심장병은 조기에 발견해 적당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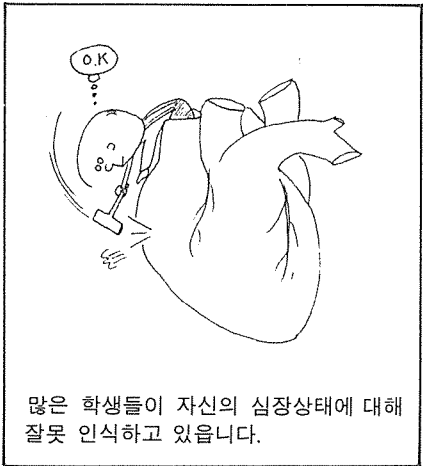
초·중·고등학생이 달리기 등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에서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연사라고 하며 돌연사를 잘 일으키는 심장병은 심한 대동맥판협착, 특발성심근증, 관동맥류 등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학교 학생들 중 약 0.3%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며 0.03%가 류마치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00명중 약 3명정도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지 정상인지에 관해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고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평소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반대로 심장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가벼운 심장병인데도 지나치게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우 심한 심장병인데도 확실히 알지 못해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돌연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심장상태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장병, 특히 선천성심장병은 심장수술의 발달로 적당한 시기에 수술만 하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어린이에 대한 심장병검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은 그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수술 필요성 유무, 운동제한의 유무, 수술시기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에 대한 검진을 통해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심장병이 있다면 어떤 심장병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 치료의 방법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